

GYEONGNAM INVESTMENT
BUSINESS AGENCY



경남
산업·경제이슈



주력산업 회복과 경남 제조업 고용 동향

경남 산업·경제이슈 CONTENTS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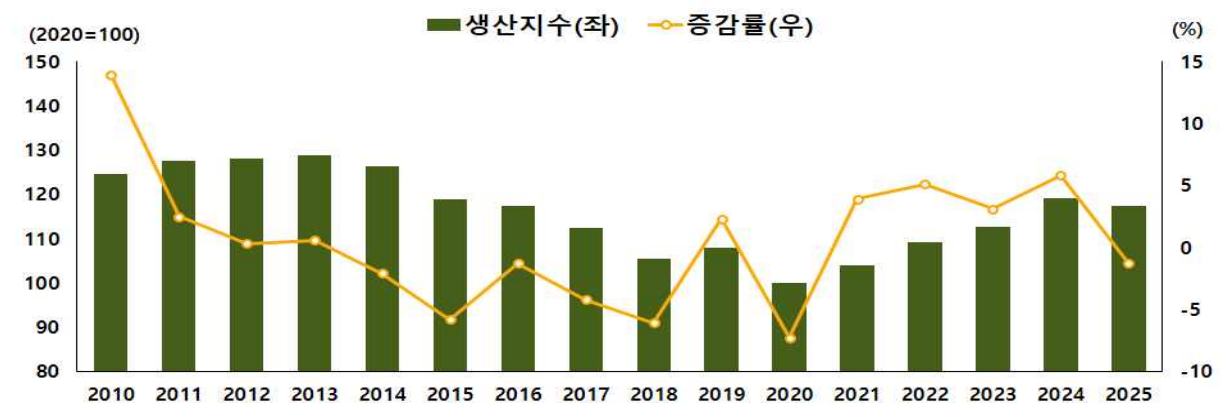
1. 경남 주력산업의 회복	1
2. 경남 제조업 고용 동향	5
3. 경남 주력산업 고용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	8

01 경남 주력산업의 회복

가. 경남 제조업 생산

- 경남 제조업은 주력산업의 호황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다 2025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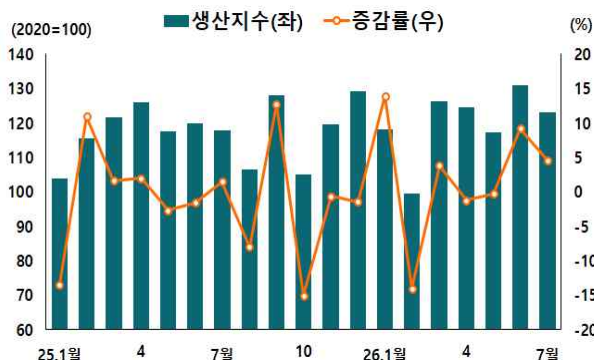
경남 제조업 생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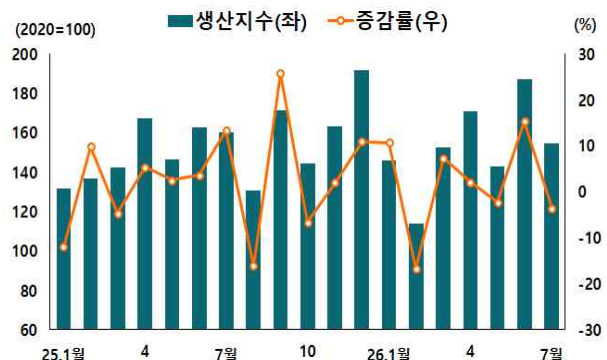
주: 1) 전년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

- 월별 지표로 살펴보면, 경남은 조선 및 방산·항공우주 등 주력산업 호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는 소폭 둔화된 모습
- '26.7월 경남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하였으나 경남의 주요 주력산업(선박, 항공우주 등)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는 3.6% 하락

경남 전체 제조업 생산¹⁾



경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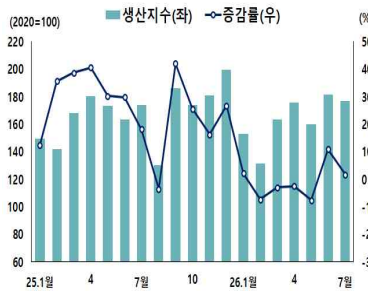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기타운송장비(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등)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하위 산업분류별 제조업 생산 또한 증가세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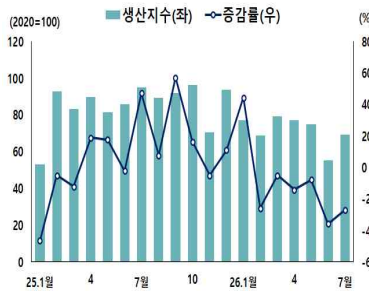
* 하위 산업분류 생산 지수는 전국 데이터만 제공하므로 대체 활용

- '26.7월 전국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생산은 각각 1.7%, 5.2%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였고, 철도장비 제조업 생산은 26.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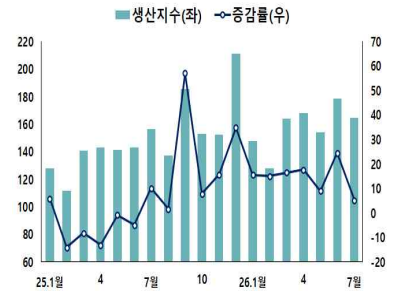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¹⁾²⁾



철도장비 제조업 생산¹⁾²⁾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생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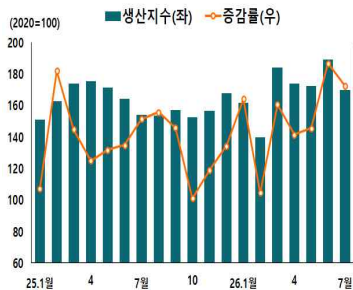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국 데이터만 제공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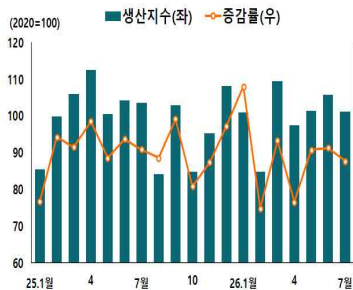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업은 상반된 흐름

- '26.7월 경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은 각각 10.1%, 25.6% 증가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2.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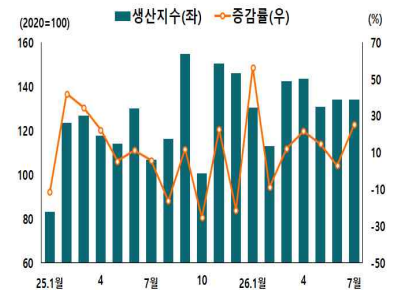
경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¹⁾²⁾



경남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생산¹⁾



경남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생산¹⁾³⁾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엔진, 트레일러, 부품 등) 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무기 및 총포탄 등)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

■ 회복 속도 격차와 산업 특성에 따른 수주-생산 반영 시차 등으로 인해 업종별 회복세가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선박, 방산 제품은 계약 수주 후 실제 설계-자재 발주-건조-조립-생산-인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산업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수주 호조가 기계·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어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구조적인 시차 또한 존재

■ 또한, 그간 성장세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견인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

- 고금리·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주 물량을 즉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공급병목 현상이 우려됨

- 숙련 인력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에 따른 구인난 역시 대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생산 지연에 영향
- 대형 수주 성과로 누적된 수주 물량의 순차적 소진과 전년도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나. 경남 제조업 수출

- 경남 수출은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
- 경남 수출은 선박, 해양구조물 등의 인도시기에 따라 증감폭이 확대되는 특징
 - 수출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시기에는 주로 선박, 해양구조물 등의 수출 또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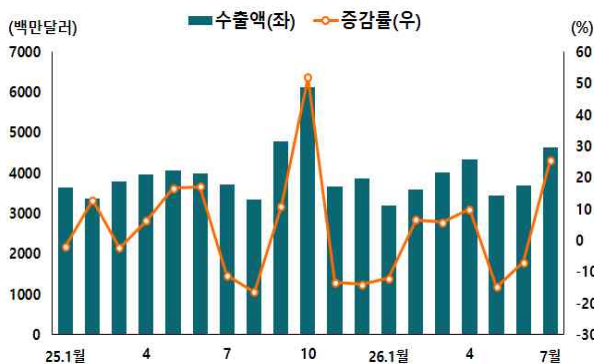
경남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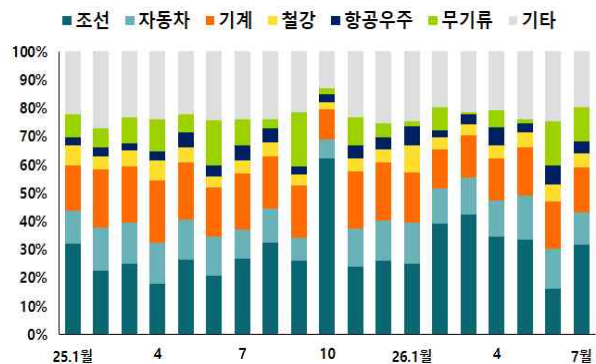
주: 1) 전년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월별 지표로 살펴보면, 경남 수출은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역내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조선, 기계 등)의 영향이 큰 편
- '26.7월 기준 조선업의 경남 수출 비중은 31.4%로 선박 인도 시점에 따라 수출 비중 편차가 발생
- 자동차산업(11.4%)은 꾸준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산업(16.3%)은 감소하는 추세
- 무기류(11.8%)의 경우 편차가 있으나 전년대비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

경남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¹⁾



경남 산업별 수출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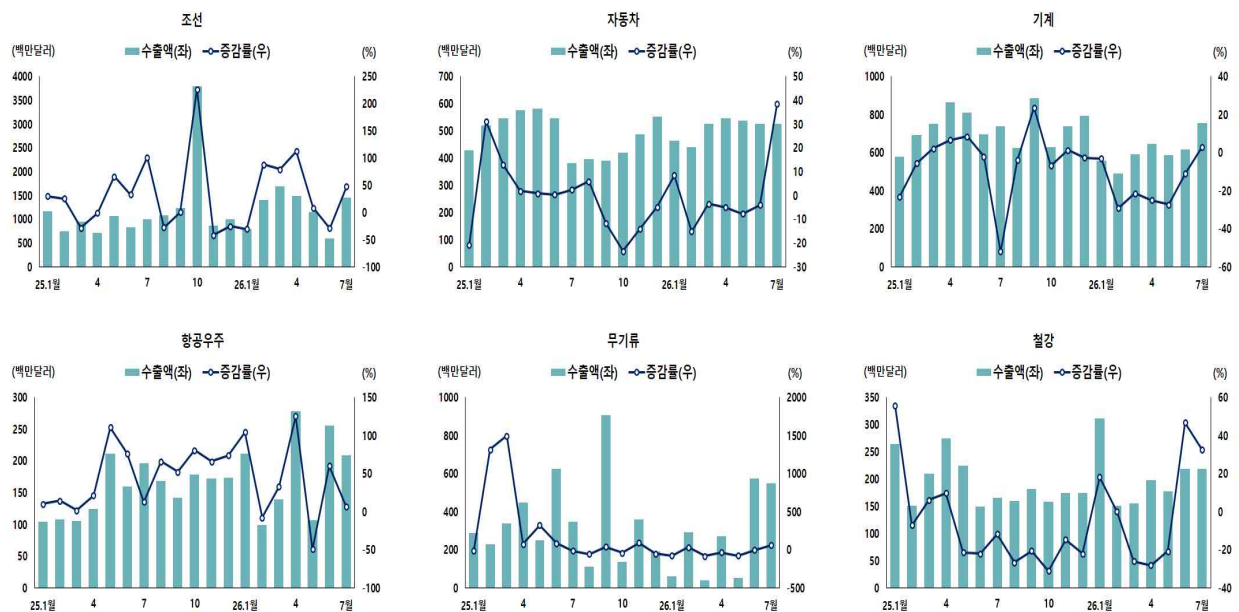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경남 전체 수출액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

- 조선·항공우주는 증감 등락폭이 크나 대체로 상승하였고, 자동차·무기류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큰 폭으로 증가, 기계·철강은 최근 상승 전환하였으나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
- '26.7월 자동차산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조업일수 증가(하계휴가기간 이동 '25.7월→'26.8월)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가(65.2%)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8.4% 증가
- 무기류 수출은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중 큰 폭의 증가율을 지속하여 2026년 수출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6.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8.0% 증가 전환*

* '26.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K9PL 자주포 2차 계약 물량의 첫 배치를 선적

경남 산업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¹⁾²⁾



주: 1) 전년동기대비

2) MTI코드: 조선(746), 자동차(741, 742), 기계(71, 72, 73, 75, 76), 항공우주(747, 748), 무기류(97), 철강(61, 69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즉, 경남 수출 또한 주력산업이 견인하고 있으며 주력산업 수출 등락에 따라 변동성도 확대되는 구조

- 선박 인도 시점, 무기류 출하 일정 등에 따라 월별 수출 등락 폭이 확대된 모습이며,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업의 수출 증감 양상과 경남 전체 수출 증감이 비슷한 흐름을 나타냄
- 향후 대형 수주의 생산 물량이 점차 인도되며 수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신규 수주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으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지역 하도급 업체로의 파급효과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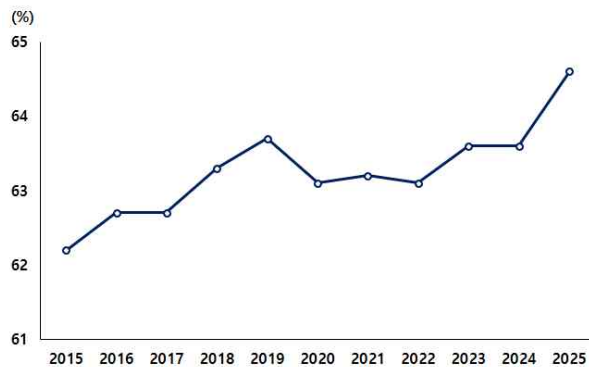
02 경남 제조업 고용 동향

가. 경남 고용 지표

■ 경남 주력산업 회복에 따라 노동시장 지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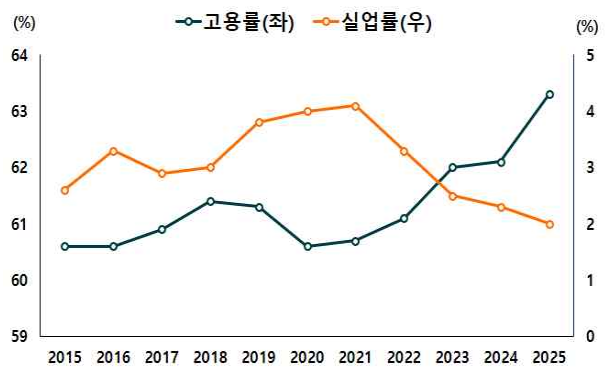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양적 고용 지표의 안정적인 회복 양상을 나타냄

경남 경제활동참가율 추이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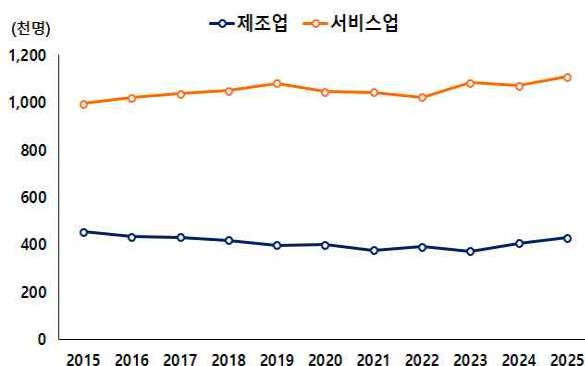
경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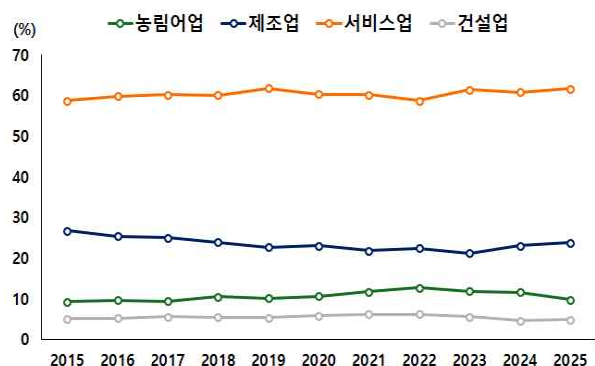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경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

-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감 추이와 비교하면 생산 증가가 고용 증가로 파급되기까지 일부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생산 공정상의 시차, 숙련 인력 수급의 불일치, 고용의 탐색 비용 등으로 인해 파급시차 존재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 비중 또한 소폭 확대되었고,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축소

경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수 추이¹⁾



경남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 추이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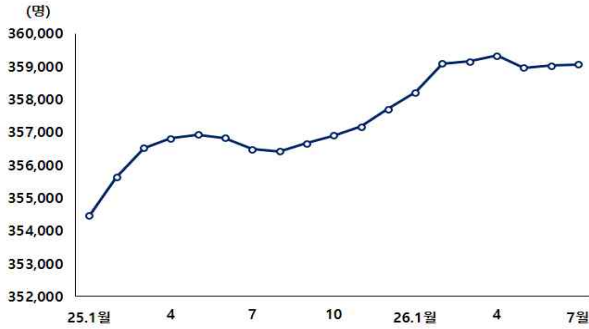


주: 1) 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2) 경남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경남 제조업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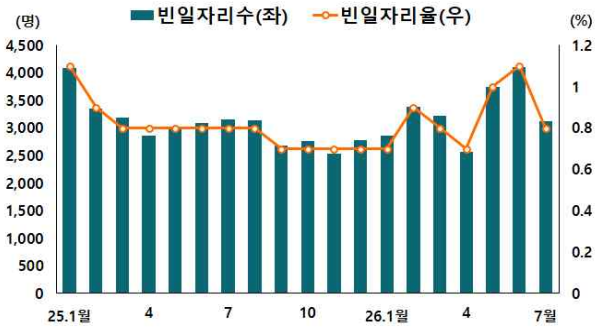
- 최근 경남 제조업 피보험자 수 또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빈일자리 추이도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

경남 제조업 피보험자 수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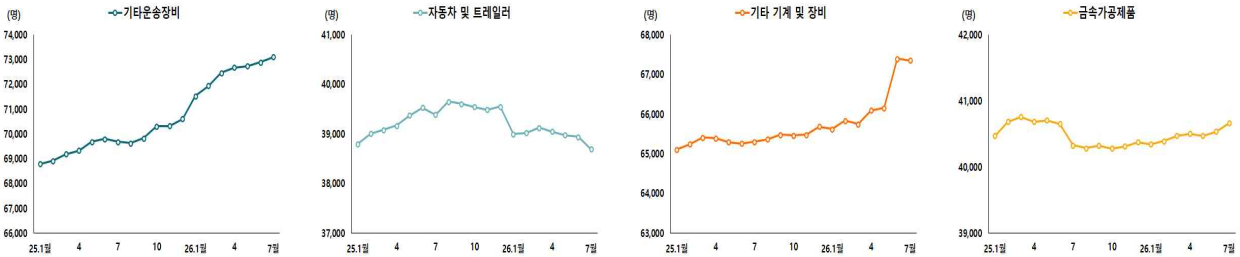
경남 제조업 빈일자리 추이¹⁾



주: 1) 빈일자리율=(빈일자리/빈일자리+전체근로자)x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세부 업종별로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자 수의 경우 '26.7월 창원(△432명), 김해(△197명), 창원(△101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1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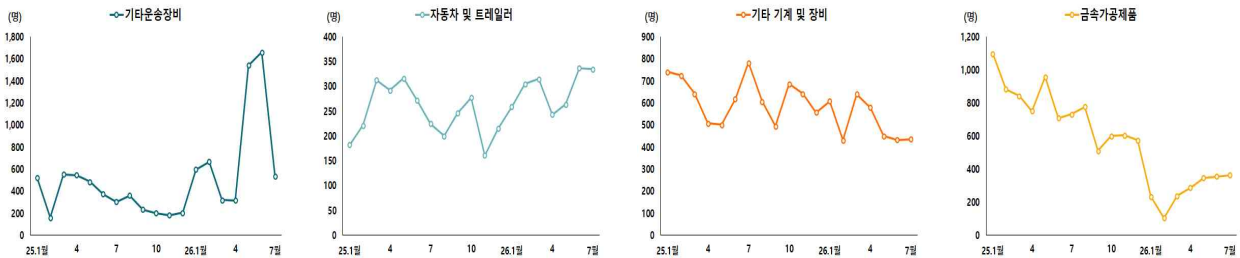
경남 산업별 피보험자 수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세부 업종별 빈일자리 수는 특정 업종·시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임
- '26.5~6월중 제조업 빈일자리 수의 상승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빈일자리 수 급등과 연관
- 이는 조선 등 제조업의 하계휴가 전 물량 집중과 납기 및 선적 일정을 맞추기 위한 현장 인력 수요 증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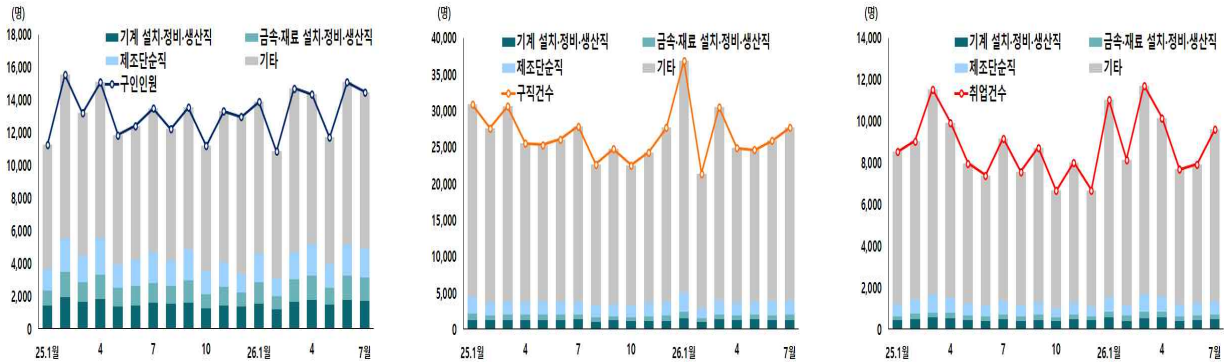
경남 산업별 빈일자리 수 추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직종별 구인인원을 살펴보면 주로 기계, 금속 생산 직종의 수요가 높은 편이나 구직건수, 취업건수 비중은 낮은 편
- '26.7월 기준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제조 단순직의 구인인원이 경남 전체 구인인원의 33.9% 비중을 차지
- 구직건수, 취업건수의 비중은 14.3%, 14.1%로 동일 직종 구인인원 비중에 비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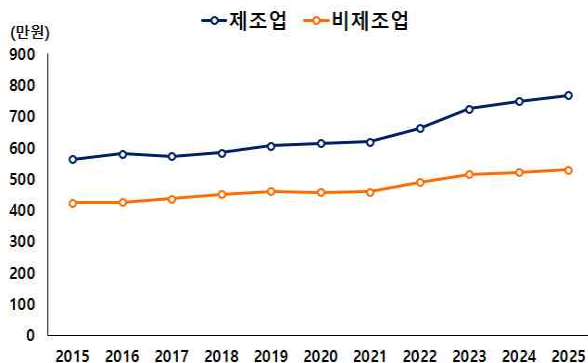
경남 구인인원·구직건수·취업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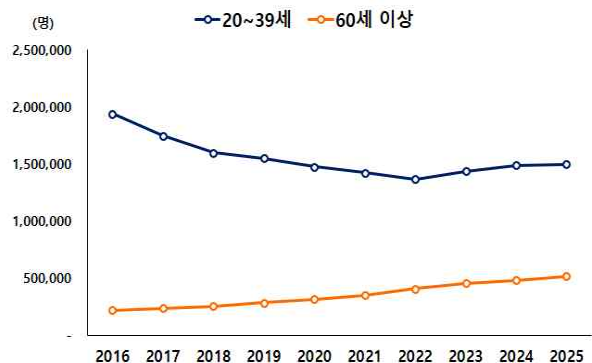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주력산업 회복세에 따라 임금 수준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되는 흐름
- 경남 제조업 1인당 평균임금이 비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승 흐름 또한 상대적으로 가파른 편
- 다만, 연령대별로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제조업 고령층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력구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
- 경남의 청년층(20~39세)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하락 추세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경남 제조업 평균임금 추이¹⁾



경남 제조업 연령별 피보험자 수 추이²⁾



주: 1) 1인당 평균임금 2) 청년층(20~39세), 고령층(60세 이상)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종합하면 경남 고용지표 개선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지역 주력산업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시 인력 공급과 미스매치 해소, 노동시장의 고령화 대응이 필요
-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수주 호황이 실질적인 생산 확대로 빠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노동시장의 인력구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또한 필요

03 경남 주력산업 고용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

가. 경남 주력산업 고용의 주요 현안

- 현재 고용 지표의 긍정적인 개선은 주력산업의 호황 영향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주력산업의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회복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조선, 방산 등의 산업은 계약 체결부터 최종 인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생산 공정을 거치는 특성이 있어 수주 실적이 협력업체의 실제 조업 활동과 채용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갭이 존재
- 대형 수주 건의 순차적 인도로 단기적인 수출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나, 수주 잔고의 순차적 소진 과정과 기저효과 작용으로 인해 향후 주력산업의 생산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부에서는 거제시에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하며 한화오션 등 대규모 투자와 연계하여 조선업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중
 - 경남도는 특화단지 구성에 2031년까지 국비 400억원을 포함해 총 7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앵커기업인 한화오션은 2031년까지 대형 해양플랜트 건조설비와 스마트 제조 자동화 등에 1조 5,220억원을 투자할 계획
 - 경남도는 이번 특화 단지 구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4조 2천억원, 고용창출 1만 9천명 규모로 추산
- 주력산업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과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적재적소에 인력이 공급되어 제조업 호황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퇴직에 따른 숙련 기술 단절과 구인·구직간 격차로 현장의 수급 미스매치가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조업 기피와 정주 여건 미비로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며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숙련 인력 부재와 고령화는 단순 고용 문제를 넘어 향후 원활한 생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

- 이에 대응하여 경남도는 주력산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접목해 숙련 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공백을 기술로 보완하는 제조 AI 전환을 추진중
 - 특히 조선업에서는 숙련공의 판단 기준, 공정별 품질관리, 불량 대응 기술 등 암묵지를 데이터화 하여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숙련 기술 단절 위험에 대응하는 시도가 진행중
 - 피지컬 AI 도입이 고용 대체가 아닌 숙련 인력 보완과 양질의 일자리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의 역량 전환을 병행하는 것이 과제
 - 자동화·로봇 도입이 확대되면 단순·반복 공정의 인력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AI·로봇 운용, 데이터 관리 등 신규 직무 수요가 늘어나 기존 재직자의 직무 전환 교육이 요구됨

나. 향후 과제

- 노동시장 구조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경남형 제조업 훈련 인프라 확대, 퇴직 숙련공을 활용한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 재직자 이탈 방지 등이 필요
 - 현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대기업 연계형 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역에서의 정주여건, 취업 연계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기술연수원의 선박 건조 용접 실무 훈련, 한화오션 엔지니어링 아카데미 등 대기업 연계형 훈련이 추진중
 - 시니어 인턴십, 숙련공 멘토 1:1 매칭 등 퇴직 숙련공을 활용한 기술 멘토링으로 제조업 숙련 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여 기술 인력이 지역에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 또한, 재직자 통합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여 신규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의 이탈 또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¹⁾
 - 재직자 통합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내 금속, 기계, 조선 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포인트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임금 외 부가급여를 높여 임금수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¹⁾
- 청년 친화적인 제조업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열악하고 위험한 제조업 근로환경 이미지를 개선하여 청년층 유출 및 제조업 노동시장의 고령화 현상을 완화
 -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처우와 원하청 간 임금 이중구조,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그리고 성장 비전의 부재가 복합 작용한 결과
 - 또한, 주거뿐만 아니라 공단 지역의 교육·의료·문화·상권 인프라가 미흡하여 퇴근 후의 삶이나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정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스마트공장, 로봇 도입 지원을 통해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근로환경·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근무 외의 생활에서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확보될 필요

1) 경남 산업·경제이슈(2023년 11월호), 경남 지역 빈일자리 현황과 지역 차원의 해소방안

■ 산업수요 기반 일자리 지원과 복지 격차 해소로 인력수급 미스매치 최소화

- 도내 주력산업 기업과 연계한 채용 트랙을 신설·확대하고, 청년 유출이 진학 연령(15~24세)에 집중된 만큼 채용 연계 트랙을 도내 대학·직업계고 진학 단계까지 확장하는 프로그램 도입²⁾
- 조선업 등에서 구조화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광역형 비자와 연계한 정착·숙련화 지원을 병행해 단기 총원에서 정주 인재로 전환²⁾
-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내 원하청 연관 업체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원하청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경남 산업·경제이슈(2026년 8월호), 민선 8기 경남경제 성과와 도약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경남도민일보, "조선도시 거제에 FLNG 기술자립화 '해양플랜트 소부장 특화단지' 확정" (2026.09.17.)
경남 산업·경제이슈, 경남 지역 빈일자리 현황과 지역 차원의 해소방안 (2023.11월호)
경남 산업·경제이슈, 민선 8기 경남경제 성과와 도약을 위한 과제 (2026.8월호)
경남신문,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5년간 745억 투입" (2026.09.17.)
고용노동부, 고용24, 직업능력개발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
글로벌이코노믹, "폴란드행 K9PL 첫 선적... 한화에어로 '현지 생산+군수'로 37조 수주잔고 실적 전환 시동" (2026.07.0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 동향(2026년 7월)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발행인	김인수
편집인	곽소희
집필인	윤종철·박예은
발행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5140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본 간행물을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경남 산업·경제동향」의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제분석센터 (T.055-230-2805, 2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메일링 서비스(<https://www.giba.or.kr>) 신청을 통해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